

“우리 나라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 보건복지위 국산 돼지고기 시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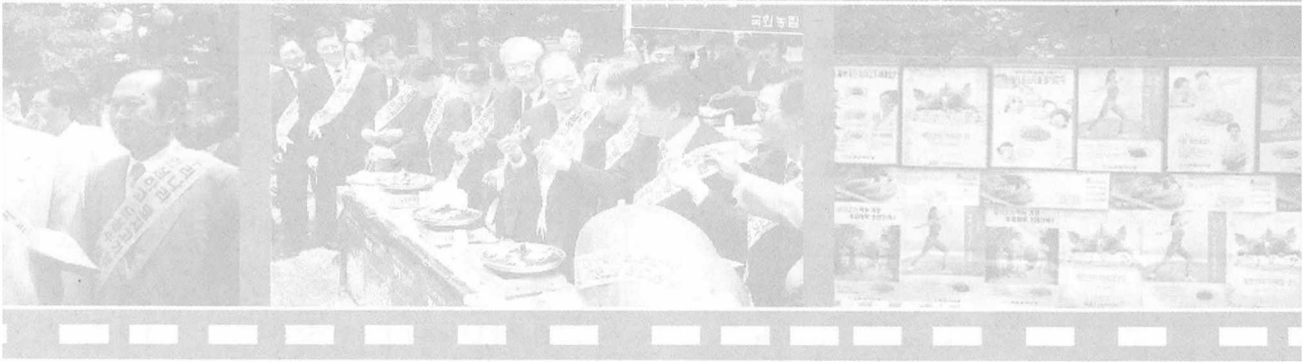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국산 돼지고기 시식회를 개최했다.

최근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으로 국내 돼지고기마저 소비가 급감하고 돼지가격이 하락하자 국회의원들이 국산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 김영진)와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 김찬우)는 6월10일 국회의원동산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식회에는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장과 김찬우 보건복지위원장, 이길재 의원, 이우재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과 차홍봉 보건복지부장관, 김동태 농림부차관, 최상백 본회 회장, 박순용 축협중앙회장과 소비자단체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진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국산 돼지고기 시식을 하고 있다.



▲최상백 본회 회장(우측)도 이날 시식회에 참석,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했다.



▲본회가 행사장에 마련한 국산 돼지고기 우수성 홍보물 전시 장면

이날 시식회에서 김영진 농림수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오염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축농가의 경영에도 막대한 타격이 있다”면서,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시식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는 이날 행사장에 국산 돼지고기는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내용의 포스터 20여장을 게시하고, 국산 돼지고기 요리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KBS, MBC, SBS 등 TV와 일간지 기자들이 대거 취재 보도했다. **양돈**

〈홍보부〉